

2009년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규제 전망

■ 강 유 리*

1. 개요

2009년 1월 8일, 네덜란드의 우편통신규제청인 OPTA(Onafhankelijke Post en Telecommunicatie Autoriteit)는 2009년에 OPTA가 중점적으로 관여할 영역을 발표하였다. OPTA의 의장인 Chris Fonteijn은 2009년에는 통신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 축소, 도매시장 경쟁 활성화 및 네트워크 투자 촉진에 주력하여 시장 참여자들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함을 언급하였다.

본 고에서는 이용자의 관점에서 정보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신뢰 확보의 계획을 담은 OPTA의 'Focus on 2009'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주요 내용

OPTA는 2006년에 장기적 관점에서 통신시장에서의 중점적 규제 영역에 대한 전망을 다룬 'Vision 2007'을 발표하였고 그 다음해에 'Vision 2008'을 발표한 바 있다.

상기 발표한 Vision 시리즈에 소개되었던 미래의 시나리오가 전기통신 및 우편 시장에 규제를 가하는 근거로서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Vision 2009'를 발표하기 보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공정경쟁정책연구실 연구원, (02)570-4257, xiaojie622@kisdi.re.kr

는 2009년에 규제 체계 안에서 중점적으로 Vision을 구현할 수 있는 분야를 'Focus on 2009'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Vision 2008'의 후속인 'Focus on 2009'에 담겨 있는 통신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덟 가지 집중 규제 영역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사업자의 위반 행위 예방

OPTA는 사업자들이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¹⁾을 수행함으로써 규제 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2008년 초에 네덜란드 최대 통신사업자인 KPN이 처음으로 compliance charter에 동의한 사업자가 되었고 2009년에는 KPN의 compliance programme 운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 보고서는 매년 발행될 것이며 다른 사업자나 이해관계자들이 OPTA가 KPN의 compliance charter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 광 네트워크(fiber network) 투자 활성화

모든 서비스가 광 네트워크를 통해 하나의 번들 상품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사업자 및 신규 사업자의 광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에는 KPN의 참여 없이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됨에 따라, OPTA는 KPN이나 다른 사업자들이 광 네트워크 투자에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한편, 이로 인해 새로운 독점이 형성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장 진입시 부과되는 의무나 관련 요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투자 불확실성을 불식시키기 위해 광 네트워크로의 접속 비용과 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2009년부터는 이러한 조건들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1) 이를 compliance assistance라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을 compliance charter라 함

(3) 기업용(도매) 시장의 경쟁 활성화

기업용 고객들의 70~80%가 KPN의 네트워크에 의존하며, 경쟁 사업자들도 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KPN의 네트워크를 이용해야 한다. 이로 인해, 2008년에 OPTA는 전화와 데이터 도매시장에서 KPN에 부과했던 의무를 강화했었다. 강화된 의무로 인해 KPN으로부터 전화와 데이터 서비스를 구매했던 다른 사업자들이 OPTA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 KPN의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09년에도 구체적 요율과 거래 조건을 결정하고 KPN이 도매시장에서 이러한 의무를 잘 지키는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소매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또한 소매시장에서 KPN에 부과되었던 의무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케이블 TV의 선택권 확대

대부분의 네덜란드 가정에서는 케이블, 위성, 디지털 지상파,²⁾ IPTV 등을 선택할 수 있고 서비스도 TV, 인터넷, 전화 등이 번들 형태로 제공되고 있으나 이러한 경쟁 상황이 케이블 시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OPTA는 이러한 상황이 케이블 사업자들이 요금 인하나 더 다양한 채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케이블 시장을 개방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케이블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와 TV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자나 다른 사업자가 네덜란드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UPC와 Ziggo의 케이블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건³⁾들이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과 신호 전송 재판매 요율을 정하여 다른 사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NOS, Vestra, Canel+, Nozema가 참여하여 디지털 방송 사업자인 Digitenne을 통해 디지털 지상파 방송 제공 중임

3) UPC와 Ziggo가 다른 케이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안한 것으로 가입자, 전송 시간, 취소 조건, 각자의 디코더 사용 관련 조건 등을 담고 있음

(5) 유럽 내 합리적 이동전화 로밍요금 부과

일반적으로 이용자들이 이동전화 가입시 국내 통화 및 SMS 요금에만 관심을 가져 사업자들이 국경간 요금 경쟁에 대한 동기가 크지 않았다. 현재 OPTA와 다른 유럽의 규제기관은 유럽전체 시장내에서 이동전화 로밍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 중에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동전화 사업자들은 2009년 8월 30일까지 요금을 인하해야 하며 만일 실패할 경우, 벌금 부과 등의 제재가 내려질 것이다. 또한 이용자들이 유럽 내에서 이동전화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로부터 요금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를 모니터링하고 ConsuWijzer라는 사이트를 통해 이동전화 가입시 주의점과 요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이 과다 비용 청구로 인한 피해를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

(6) 원치 않는 텔레마케팅 전화로 인한 불편 축소

2009년 7월부터 전화로 물건을 팔려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 선택 서비스(telephone preference service)'에 등록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OPTA는 이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에 대한 규칙과 새로운 전화 선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가 전화 선택 서비스에 등록된 이용자를 텔레마케팅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지 감시함으로써 더 이상 원치 않는 전화로 인한 이용자 불만을 줄일 예정이다. 위반시에는 경고 또는 조건부 패널티나 벌금을 부과하고 이용자 당국(Consumentenautoriteit)과 협조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7) 유료 정보 서비스의 남용 방지

OPTA는 사업자들이 유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 요금에 대해 충분히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체크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은 한 통화에 최대로 부과할 수 있는 요금을 공개해야 한다.⁴⁾ OPTA는 ConsuWijzer를 통해 사업자들이 요금 부과에

대한 규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며, 이용자를 10분 동안 대기상태로 기다리게 하는 등의 악용이 의심될 경우, 관련 전화번호를 취소할 수도 있다. 만일 번호 사용 의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법무부(Bureau Integriteit Bevordering Openbaar Bestuur)의 조언을 구하여 번호 발행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8) 인터넷 안전 보장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 하여금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안전성과 보완성에 대한 의무를 강화할 것이다. OPTA는 이용자나 사업자에게 보내지는 스팸을 감시하며, 특히 2009년에는 사회적 네트워킹 사이트인 Hyves나 LinkedIN을 통해 확산되는 스팸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것이다. 또한 High-Tech Crime Team이나 국가수사서비스 등과 협조하여 사이버 범죄 방지 등에 노력을 하며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 결 어

OPTA는 이용자들의 통신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을 통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시장에 대한 검토크를 통해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 규제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였다. 또한 최종 이용자와 기업용 고객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남용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며 인터넷 안전에 더욱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네덜란드에서는 사후적인 제재 조치보다는 위반을 예방하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새로운 법이나 규제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도하지 않은 위반이나 규제 실현의 지연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참여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고, 자율 또는 공동 규제(self

4) 예를 들어 0900 번호의 경우, 1분당 통화료가 €0.15라고 통화 시작시 제공되어야 함

or coregulation)를 통해 법을 즉각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네덜란드 규제 당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 좀 더 지켜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이행함에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임성환(2006), “EU 역내 모바일 로밍부과금 축소 움직임”, 《KOTRA》, 2006. 2. 13
- OPTA(2009), “Focus on 2009”, 2009. 1. 5.
- _____ (2009), “OPTA’s Focus on 2009: Reducing internet and telephone nuisances, stimulating more competition on the cable and business markets”, 2009. 1. 8.